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각화초 아지트 프로젝트 완료

2학년 4개 교실 자율형 교실공간으로 재구성해

다락방·집속의 집 조성...학생들 협력·소통 공간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각화초 2학년 4개 교실을 자율형 교실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아지트 프로젝트 '꿈꾸는 교실사업'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각화초는 '따로, 또 같이'를 공간혁신 테마로 정했다. 각 반이 원하는 공간을 따로 확보하고 2학년 학생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협력과 소통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려는 학생들의 의견

이 반영됐다.

학생과 교사의 대면거리를 좁히기 위해 수업진행 방향과 공간구조를 변화시켰다. 다락방, 집속의 집을 조성해 학생들이 협력과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실과 교실 사이에 폴딩도어를 설치해 평소에는 독서공간으로 학년 활동 시에는 개방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런 공간혁신은 지난 2020년 5~12월 7개월 동안 교육청 컨설팅, 학생주도 아이디어 수렴, 공간혁신TF회의 등 학교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 공간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낸 성과물이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2021년에 각화초와 광주동운초의 학교 공간 재구성 사업을 완료했고, 광주효동초 등 5개 학교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학교 공간 재구성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장흥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자기계발 프로그램 통기타 수업

학교 밖 청소년 수요 반영...주 1회 2시간씩 15주 동안 진행



장흥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장흥군(군수 정중순)의 지원을 받아 지난 19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밖청소년전용공간 햇살뜨락에서 자기계발 프로그램인 통기타 수업을 실시했다.

자기계발 프로그램은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찾아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잠재된 재능을 개발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통기타 수업은 주 1회 2시간씩 15주 동안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평소에 기타를 배우고 싶었으나 지역 내에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 배우지 못했다"며 "이번에 꿈드림 센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통기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장흥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현재 검정고시 대비반 스마트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스마트교실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정홍=김도영기자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참여위원회 설명회

교육정책 수립 관한 사항·시민의 지역교육 참여 방안 등 제안하고 자문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관)은 24일 제2기 전라남도보성교육참여위원회 구성을 위한 설명회를 보성공공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하에 개최하였으며, 전라남도보성교육참여위원회 제2기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안내했다.

보성교육지원청에서는 설명회 이후 10명으로 구성된 추천·관리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추천·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4월 5일 까지 교육참여위원 추천(지원) 접수를 받는다.

특히, 이번 제2기 교육참여위원회는 제1기 교육참여위원회에 비해 위원 구성 기본 방향(학부모 위원수 확대, 학생 위원 탄력적 운영, 영리목적의 이해당사자의 참여 제한 등)에서 달라진 점이 눈에 띄었다.

교육참여위원회의 분야별 인원과 심사기준 등을 만들어 4월 13일 심사를 통해 지원신청자들 가운데 적임자를 정수(28명)의 최소 1.5배로 교육장에게 추천하고, 교육장이 선정하여 4월 21일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다.

교육참여위원회 위원의 역할은 ▲교육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시민의 지역교육 참여 방안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안하고 자문하게 된다.

김한관 교육장은 "주민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참여위원회를 통해 보성교육 정책수립 과정 등에 적극 참여해 소통과 협력의 내실있는 교육자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행복 나주교육, 교육참여위원회로 꽃피우다

제2기 나주교육참여위원회 구성 위한 설명회 개최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길)은 24일 오후 2시 전남창의융합교육원 대강당에서 제2기 나주교육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학생과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제1기 교육참여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교육참여위원회 활동 기한이 오는 4월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위해 실시했다.

나주교육지원청에서는 설명회 이후 10명

으로 구성된 추천·관리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추천·관리위원회는 참여위원회의 분야별 정원과 심사기준 등을 만들어 지원신청자들 가운데 적임자를 교육장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교육참여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자체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30명 이내의 인사로 구성하기 위해 오는 4월 13일까지 지원서를 받는다.

새로이 구성된 제2기 나주교육참여위원회는 △지역교육의 정책 수립 방향에 관한 사항 △나주교육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그 밖에 교육현안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김영길 교육장은 "제2기 교육참여위원회가 운영되면 주민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요구사항을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이룰 수 있다"며 "미래의 삶을 디자인하는 행복나주교육은 교육참여위원회로 꽃피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순천대학생상담센터 '항림공감소통채널' 개설

온라인 상담 서비스 제공·소통 강화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학생상담센터는 2021학년도 신입생과 재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과 정신건강 안정을 돕고자 지난해 시범 운영하던 온라인 항림공감소통채널을 정식 개설하고 대학 구성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소통의 장으로 활용한다.

지난해 3월부터 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생활 환경으로 학습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재학생들을 돕기 위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고민 소통 채널을 개설하고, 비대면·온라인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채널 오픈 기간인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약 1년 동안 가입 인원 398명, 채팅 상담 건수 60건, 정신건강 위기 상담 연계 1건, 방문자 수 796건, 조회 수 1,532건 등 많은 재학생이 적극적으로 채널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순천대는 비대면 상담 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달부터 '항림공감소통채널'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구성원은 카카오톡에서 '순천대학교 학생상담센터'를 검색하고 채널을 추가하면 된다.

순천=김승호기자

